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따뜻했다.

제목 : 후회 없는 하루

나의 유일한 늦잠을 잘 수 있는 일요일이어서 늦잠을 잘 줄 알았지만 NLCS (제국명중학교) 학교 시험을 봐야해서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마자 음식을 잤는 나는 역시 오늘도 음식을 잤었다. 냉면고 물을 열자 냉면이 나오면서 아저씨가 덜컹 나를 한번에 가져왔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었던 나는 눈을 비비듯, 두번째 칸에 있던 소우배방과 마지막 칸에 있었던 바나나를 TV를 보면서 맛있게 먹었다. 어느덧 20분이 지난 것을 본 나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 후에 따뜻한 물의 날씨에 마주에서 뭉글까지 오는 기무 바지와 반팔 티와 야구점퍼를 입고 아버지와 차를 타고 서울 시청 앞에 있는 서울 무역사에 갔다. 졸업증 카드를 꺼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안에 들어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많은 강당들 중에서 한 강당에 들어가서 지정해져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영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에세이를 썼다. 5분의 뒤는 시간 후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웠다. 주판도 나오고 지갑, 주머니도 나와서 진짜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개시간에서 4시간의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마자 나는 내 침대에서 뻗었다. 머리뭉치 하아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서 정말 후회 없는 하루였다.